

# 한국어 명사와 동사 결합 관계의 변화

이금희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dawon4068@skku.edu](mailto:dawon4068@skku.edu)

## 1.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어에는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 혼코노(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다)' 등의 구나 문장에 가까운 표현들이 앞 음절만을 이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두자어에서부터 '돼지런하다(돼지+부지런하다), 호캉스(호텔+바캉스), 요린이(요리+어린이)'와 같은 다양한 혼성어들도 등장하고 있다.<sup>1)</sup> 이전 시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법한 단어 구성이 보이고 젊은층이 아닌 세대들에게는 전혀 그 의미를 예측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다수 생성되고 있다. 이런 많은 새로운 단어, 즉 신조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게임 사이트나 SNS에서 활발히 사용되다가 일상생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즘은 이처럼 이전 세기와 확연히 다른 단어들이 생성됨은 물론 명사와 동사 결합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예들이 있다. 다음 (1가~마)의 밑줄 친 표현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SNS상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젊은층에서는 일상어로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 (1) 가. 알빠 아니잖아 내가 누굴 좋아하든지, 상관쓰지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
- 나. 오랜만에 옛날 노래 듣는데 추억 돌아...울컥...
- 다. 그린 셔츠 텐셀 소재인데 가성비는 완전 착해.
- 라. 선생님 말씀 주신 거 반영해 최대한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 오늘 시험 보는데 긴장 타 가지고 발에 땀이 너무 차서 후들후들 집에 오니 냅세 찌러

(1가)의 '상관쓰지마'는 '상관하지 마'로 표현하거나 '신경을 쓰지 마'로 표현해야 하고, (1나)의 '추억 돌아'는 '추억에 잠겨' 정도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다)의 '가성비가 착하다'는 표현은 '가성비가 높다'나 '가성비가 좋다' 정도로 표현하고 (1라)의 '말씀 주신'은 '말씀해 주신'으로, (1마)의 '긴장 타 가지고'는 '긴장해 가지고' 정도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1)의 예들은 이미 해당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나 형용사의 결합 짝이 있는 표현들인데 새로운 동사나 형용사의 결합을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런 동사들의 교체는 어떤 기제에 의해 일어나고 기존 표현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본고는 기존의 명사와 동사의 결합 짝이 존재하는 구성들에서 후행하는 성분이 새롭게 교체되는 구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교체가 일어나는 기제는 무엇이고, 교체 후 이들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어휘 제약과 연어 구성

어떤 언어 표현이 또 다른 표현과 결합하여 쓰이는 현상은 크게 설명 가능한 경우가 있고 설명이 잘 되지 않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Mel'čuk(1995:173)에서는 전자를 자유구(*free phrases*)라 하여 의미와 형식에서 비제한적인 부류로 그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반해, 후자는 고정구(*set phrases*)로 두 단어의 연쇄가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

부류라고 설명하였다. 고정구에는 연어와 관용 표현이 있는데 관용 표현이 두 어휘의 결합이 대등하게 결합되어 제3의 의미를 갖는 것과 달리, 연어는 한 어휘의 의미 구조상 다양한 결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와만 관습적으로 결합하는 어휘 항목의 연쇄를 가리킨다.(김진해, 1999:240)

예문 (1)에 나타난 '상관(을) 쓰다, 추억(이) 돋다, 가성비가 착하다, 말씀을 주다, 긴장을 타다' 등은 서술어 '쓰다, 돋다, 착하다, 주다, 타다' 서술어의 의미 구조로 '상관, 추억, 가성비, 말씀, 긴장'이 논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명사 '상관, 말씀, 긴장'은 '하다' 동사를 취하고 '가성비'는 '높다'나 '좋다', '추억'은 '잠기다' 서술어를 취하여 문장에 나타나는 명사들인데 어떠한 연유인지 '상관'은 '쓰다'를, '추억'은 '돋다', '가성비'는 '착하다'를, '말씀'은 '주다'를, '긴장'은 '타다'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다. 원래 구성인 '상관을 하다, 말씀을 하다, 긴장을 하다, 가성비가 높다'는 해당 어휘들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상 결합 가능한 어휘 부류가 연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연결된 경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새롭게 결합된 명사와 동사(형용사) 구성은 명사가 특정한 동사를 어떤 연유로 선택하여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로 보아 연어 구성으로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연어 구성은 연어핵과 연어변으로 이루어지고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한적으로 요구하여 생겨난 범주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단일방향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어변의 위치에 오는 성분을 어휘적 유사성을 가진 다른 말이나 표현으로 대치하거나 반의어로 대치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 (2) 연어의 특성

가. 선택의 단일 방향성(김진해, 2000)

나. 연어변의 유사어, 반의어 대치 불가(임흥빈, 2002)

다. 연어핵은 비전의적(非轉意的)인 의미를 가지고 투명해야 함.(이동혁, 1998, 임흥빈 2002)

(3) 가. 문을 {열다/개방하다/오픈하다/닫다/폐쇄하다}

나. 눈을 {뜨다/\*열다/\*개방하다/\*오픈하다/감다/\*닫다/폐쇄하다}

(2)와 같은 연어의 특성을 (3가, 나)의 '문을 열다'와 '눈을 뜨다'에 적용해 보면 '문을 열다' 구성은 자유 결합 구성이 되고 (3나)의 '눈을 뜨다'는 연어 구성이 됨을 알 수 있다. (3가)의 '문을 열다'의 '열다'는 유사어 '개방하다, 오픈하다' 등과 교체가 가능하고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닫다, 폐쇄하다' 등도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눈을 뜨다'의 '뜨다'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열다, 개방하다, 오픈하다'와 교체될 수도 없고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닫다, 폐쇄하다'와도 결합이 불가능하다.

(4) 가. 새싹이 {나다/돋다}

가.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들으니 추억이 {돋아/\*나}

나. 성격이 {착하다/온화하다/부드럽다}

나. 그 차는 가성비가 {착해서/\*온화해서/\*부드러워서} 잘 팔린다.

다. 선물을 {주다/건네다/보내다}

다.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건넌/\*보낸} 거 잘 정리해 반영하겠습니다.

라. 속이 {타다/새까맣게 변하다}

라. 오늘 시험 보는데 긴장 {타서/\*새까맣게 변해서} 죽을 뻔했다.

(4가~라)에서 보듯이 '돋다, 착하다, 주다, 타다'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어 구성에서 쓰이는 (4가~라)는 불가능하다. 이는 연어 구성은 구성 요소 중 한 어휘소가 특정의 어휘소를 선택하는데 이때 선택된 어휘는 연어핵과의 관계에서 의미의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다른 어휘들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 3. 연어 관계의 변화 원인

기존의 명사와 동사의 결합 관계를 갖고 있던 구성들에서 동사가 교체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언어의 형성에 대해서는 조은영(2010)과 장경현(2011) 등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대체로 유추를 그 기제로 보아 왔다. 조은영(2010:307)에서는 어휘부에 저장된 연어 표현 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유사한 틀의 연어 표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론으로 화자에게 익숙한 기존의 연어들로부터 새로운 연어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유추에는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와 '형태'의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5) 가. 눈길을 {거두다/끌다/돌리다/모으다/주다/피하다}
- 나. 시선을 {거두다/던지다/돌리다/두다/떼다/피하다}
- (6) 가. 사기: 사기를 치다={농간/야바위/뺑끼}: X
- X={농간/야바위/뺑끼}을/를 치다
- 나. 멋: 멋이 나다={폼/뽀대/간지}: X
- X={폼/뽀대/간지}이/가 나다
- (7) 가. {판결/판가름/판명/판정/결판}이 나다
- 나. {승강이/실랑이/실갱이}를 벌이다
- 다. {농땡이/땡땡이}를 치다

(조은영, 2010:311-312의 예)

(5)의 '눈길'과 '시선'처럼 어휘적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 근거 연어에서 발견되는 의미부류가 표적 연어에서도 그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6가, 나)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기'나 '멋'의 연어 표현이 부분적으로 의미가 유사한 '농간, 야바위, 뺑끼'나 '폼, 뽀대, 간지'라는 새로운 어휘가 어휘부에 등록될 때 의미적 유사성에 근거해 유추가 일어나 같은 유형의 연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표적 연어와 근거 연어 사이의 관계가 의미적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 형태소나 음상과 같은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7가~다)와 같이 유추가 일어나 유사한 연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장경현(2011:288-9)에서는 신조어 연어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유추와 함께 환유를 또 다른 기제로 제시하고 있다.

- (8) 가. 웃음 터지다, 말문 터지다, 붓물 터지다, 대박 터지다, 복이 터지다
- 가'. 포텐(<potential) 터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 나오다]
- 나. 맞장 뜨다
- 나'. 현피 뜨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현실에서 (직접 만나 싸우다-> 직접 만나다)]

신조어인 (8가, 나')의 '포텐 터지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능력이 강한 힘으로 외부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웃음 터지다, 말문 터지다' 등과 관련될 수 있고, '현피 뜨다'는 '맞장 뜨다'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유사한 의미구조를 가진 표현이 현저화되면서 환유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은영(2010)에서 제시된 유사한 의미구조로 인한 유추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보인다.

언어 구성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황용주(2006)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는데 이 논의에서는 신소설과 개화기 시기의 '담배를 먹다'의 연어 구성이 현대 국어에서 '담배를 피우다'와 '담배를 태우다'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넓은 유개념의 '먹다'가 종개념어인 '피우다'와 '태우다'로 변화하게 된 것이고 연중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와 물건을 태우는 행위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담배를 먹다'를 좀더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려는 의도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로 설명하였다. 기존 논의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연어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어휘가 서로의 연어변을 공유하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신조어의 경우는 의미나 형태적인 유사성을 가진 기존의 연어 틀을 적용하는 유추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담배 먹다'의 경우처럼 연중들이 넓은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를 좀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연어 관계가 변화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1. '상관 쓰다'류

그렇다면 '상관(을) 쓰다, 추억(이) 돈다, 가성비(가) 착하다, 말씀(을) 주다, 긴장을 타다'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9) 가. 엄마는 내 일에 상관쓰지 마.

나. 남들이 뭐라던간에 당신의 꿈 포기하지만, 음원에서 스카이민혁 제거 버전 상관 안써 어  
찌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보여주는거 보고 여러분들도 꿈을 잊지마

다. 그는 절대 아내의 일에 상관을 하지 않는다.

라. 별일이 아니니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10) 가. 내 남자친구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나에게 관심도 쓰지 않는다.

나.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9가, 나)의 '상관 쓰다'라는 표현은 '남의 일에 간섭함'을 의미하는 명사 '상관'이므로 (9다)처럼 '상관(을) 하다'의 '하다' 서술어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사소한 일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신경을 쓰다'의 '쓰다' 동사를 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상관'과 '신경'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여 발생하는 서술어 선택 제약의 오류로 볼 수도 있다. (10나)처럼 '관심을 가지다'로 써야 할 '관심'의 경우도 (10가)처럼 '관심 쓰다'의 결합 형태도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의 새로운 언중들(?)은 '상관을 하다, 신경을 쓰다, 관심을 가지다' 구성의 각 명사가 의미 차이도 있고 다른 형태의 동사를 결합해 써야 한다는 정보를 무시한 채 동일한 동사 '쓰다'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오류로 보아야 하는가. 만약 오류로 보지 않고 언어의 변화 현상으로 본다면 이를 어떤 기재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상관'은 '남의 일에 간섭함'을 의미하고 '관심'은 '어떤 것에 마음이 이끌려 주의를 기울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남의 일이나 어떤 것에 상관하거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신경이 쓰이게 되기 마련인데 이처럼 '상관을 하면 신경을 쓰게 된다', '관심을 가지면 신경을 쓰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의 사태를 함께 나타내려는 의도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10) 가. 배우 유선 "남편의 냉정한 연기 평가 좋긴한데 빈정상해"

나. 남자친구가 요즘 만날 때마다 빈정거리 마음이 많이 상한다.

(10가)의 '빈정상하다'라는 표현은 '상관쓰다'나 '관심쓰다'보다는 좀더 널리 쓰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쓰이는 '빈정'은 '빈정거리다'의 어근 '빈정'에 '마음이 상하다'나 '감정'이 '상하다'의 '상하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이 쓰이면서 국어사전에 '비위에 거슬러 기분이 몹시 언짢다'라는 의미로 등재되기까지 하였다.<sup>2)3)</sup> 즉, '누군가가 빈정거리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원인이 되는 사건의 명사와 결과가 되는 사건의 서술어가 함께 결합되어 원인-결과 사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것이다.

(11) 가. 지금 커피를 끓이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줘.

나. 나무에 구멍을 뚫어 집을 짓는 새들이 있다.

다. 빵을 굽는 냄새가 아주 구수하다.

라. 그동안 쓴 논문을 모아 논문집을 엮어 냈다.

(11가~라)는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에서 동사의 속성과 구문이 요구하는 속성 사이에 불일치를 보이는 예로 자주 제시되는 구문인데 '커피를 끓이다, 구멍을 뚫다, 빵을 굽다, 논문집을 엮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만든다'나 '나무를 뚫어 구멍을 만든다',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빵을 만든다', 그리고 '논문을 엮어 논문집을 만든다'로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다.(박진호 2016:388) 그런데 '끓이다, 뚫다, 굽다, 엮다' 동사의 본래 속성을 유지하면서 말하려면 표현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구문 형식을 이용하여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sup>4)</sup> (11가~라)의 '커피를 끓

이다, 구멍을 뚫다, 빵을 굽다, 논문집을 엮다' 구성들도 원인의 행위와 결과의 행위를 나타내는 구문의 일부 구성 요소들을 이용하여 전체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선행절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동사를 후행절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타나는 사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 (12) 가.  $[N_1+V_1, N_2+V_2] \Rightarrow [N_1+V_2]$ : 빈정(이) 상하다, 상관(을) 쓰다, 관심(을) 쓰다  
 가'. 남자친구가 **빈정거려서** 내 마음이 **상했다**. = **빈정(이) 상하다**  
 나.  $[N_1+V_1, N_2+V_2] \Rightarrow [N_2+V_1]$ : 구멍(을) 뚫다, 커피(를) 끓이다, 빵(을) 굽다  
 나'. 벽을 **뚫어서** 구멍을 냈다. = **구멍을 뚫다**

(12가)의 '빈정 상하다, 상관 쓰다, 관심 쓰다'의 경우는 선행절의 명사와 후행절의 동사가 결합하여 전체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12나)의 '구멍 뚫다, 커피 끓이다, 빵 굽다'의 경우는 후행절의 명사와 선행절의 동사가 결합하여 전체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선행 사건의 일부 문장 성분과 결과가 되는 후행 사건의 일부 문장 성분을 결합하여 전체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 구성이 형성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sup>5)</sup>

'빈정 상하다'나 '상관 쓰다, 관심 쓰다'와 같은 표현은 이러한 결합 구성에서 비롯된 교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긴 구절을 짧게 줄여 쓰는 젊은층의 표현 방법과도 맥이 닿아 있다.<sup>6)</sup>

- (13) 가: 오늘 시험 끝나고 뭐 하니?  
 나: 내 일에 **상관하지** 마.  
 나': 내 일에 **상관쓰지** 마.

(13가)의 시험 끝나고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13나)의 '상관하지 마'보다 (13나')의 '상관쓰지 마'가 조금은 덜 서운하게 들린다면 이는 '내 일에 상관하면 신경을 쓰게 된다'는 배려가 조금은 들어있는 표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긴장 타다'도 '긴장하다'와 '속이 타다'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빈정 상하다'나 '상관 쓰다', '관심 쓰다'와 같은 유형의 결합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장하다'와 '속이 타다, 애가 타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이다. '긴장하다'는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이고 '속이 타다'는 '마음이 안타깝거나 조마조마하여 마음이 몹시 조급해진다'로 유사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빈정 상하다, 상관 쓰다, 관심 쓰다'의 경우에서처럼 원인과 결과의 사태가 아닌 것이다.

- (14) 가. 오늘 시험 보는데 **긴장 타** 죽을 뻔했어.  
 나. 아들이 시험 보는 동안 내내 **긴장하고 속이 탔어**.

(14나)의 예에서처럼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속이 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긴장하다'와 '속이 타다'는 원인과 결과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느껴지는 정도성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감정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긴장하다'보다는 '속이 타다, 애가 타다'가 더 심하다는 정도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긴장 타다'라는 표현은 '긴장을 하고 속이 타다'는 상황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 쓰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2. '말씀 주다'

'말씀을 주다'의 '말씀'은 '말씀을 하다, 말을 하다, 조언을 하다'처럼 '하다' 동사와 결합해야 자연스러운 의미부류이다. 그런데 최근 젊은층에서 '말씀'을 '하다'가 아닌 '주다'와 결합해 쓰는 경우가 있다. 이 표현의 특이한 점은 '말씀'이 아닌 평대어 '말'과는 '주다'가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을 주다'의 결합 관계 형성은 첫째, '말씀해 주다'의 구성에서 동사파생접미사 '-하다'가 생략되

고 '주다'가 보조동사에서 본동사로 이동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고, 둘째, '선생님께 말씀 드리다' 구성의 객체 높임의 '드리다'를 높이지 않는 '주다'로 교체한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주로 쓰이는 상황을 보면 특정 종교에서 신의 언명이나 선생님처럼 지위가 높은 대상이 한 말을 가리킬 때 쓰인다.

첫 번째 가정과 같이 보려면 국어의 명사와 동사 결합 관계에서 보조동사가 본동사 기능을 하는 경우가 과연 가능한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파생접미사 '하다'가 생략되고 보조동사가 동사처럼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가이다.

(15) 가. 그 일은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가. 그 일은 정말 **걱정** 말아요.

나.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나.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 말아요.

(15가, 나)의 '걱정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말아요'의 경우 '하다'가 생략되고 (15가, 나)처럼 보조동사 '말아요'가 서술어처럼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보면 '말씀해 주다'의 '해'의 생략 현상이 아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주다'의 객체높임 표현 '드리다'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높임의 대상에게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가 선생님께 말씀 드렸어요.'의 상대적인 표현으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sup>7)</sup>

(16) 가. 좋은 **말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ππ <인터넷 예>

나. 수업 때 교수님 **말씀 다 받아**적는 우등(우등생?)들아 <인터넷 블로그 예>

다. 이종걸 "국회는 청와대 **말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인터넷 신문기사>

라. 한 해 자신의 생활 돌아보기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한 **말씀 받아**오기 <인터넷 예>

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16가)의 인터넷 예는 자신의 글을 보는 독자를 청자로 생각하고 쓴 문장이므로 이때 말씀을 한 사람은 청자인 '모든 분'이 되고 청자가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로 '받아 적다, 받아 쓰다, 받아 오다'와 같은 합성어적인 구성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다'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말씀 받다' 형식이 가능하다. (16마)와 같이 특정 종교에서는 '말씀 주다'와 '말씀 받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sup>8)</sup>

'말씀(을) 주다'의 결합이 '말씀해 주다'에서 접미사 '하다'의 생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말해 주다'에서도 '하다'가 생략하고 '말 주다'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 주다'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말씀 주다(↔말씀 받다)'의 결합 관계는 '말씀 드리다'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 가. 제가 직접 선생님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선생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저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제가 선생님 좋은 **말씀 받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 제가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7가)처럼 상대방에게 '말씀'을 화자가 할 때는 '드리다'를 쓰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높임의 대상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할 때는 (17나)처럼 '주다'를,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이 들었을 때는 '받다' 동사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많은 언중들은 '말씀 주다'와 '말씀 받다'보다는 (17나, 다)처럼 '말씀을 하다'와 '말씀을 듣다'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한다.

### 3.3. '추억 돋다'와 '가성비가 착하다' 류

'추억이 돋다'와 '가성비가 착하다'의 '돋다'와 '착하다'는 본래의 단어보다 아주 폭넓게 확장되어 쓰이는 것들 중 하나이다. '추억(이) 돋다'의 '돋다'는 '우정 돋다, 감동 돋다, 미모 돋다' 등 많은 명사들과 함께 쓰이면서 선행하는 명사가 '아주 많이 생겨나다' 또는 '그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가성비 착하다'의 '착하다'는 '얼굴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성분이 착하다' 등으로 쓰이면서 선행하는 명사가 '화자의 마음에 들거나 만족스럽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차이가 있다면 '착하다'는 선행하는 대상이 화자가 만족할 만하다는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돋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장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이거나 상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말로 '소름 끼치다, 놀랍다, 무섭다' 등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아, 김태희 미모 돋는다, 슈퍼스타K 허각, 가창력 레알 돋는구나' 등의 용례에서처럼 감탄형의 맥락에서 자주 나타나 일정한 의미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sup>9)</sup>

장경현(2011:292)에 따르면 최근 신조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돋다'는 본래 '소름(이) 돋다'에서 연어핵인 '소름'이 생략되고 주제에 해당하는 명사가 '돋다'와 직접 결합하여 '미모가 (소름이) 돋다, 감동이 (소름이) 돋다'처럼 이중주어문 구조에서 '소름'이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결합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래 '레알(real) (소름) 돋아'의 형태로 자주 쓰였던 것인데 '레알'이 생략되고 '돋다'가 '소름 돋다'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환유적 의미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돋다' 동사의 본래 의미는 '나무에 새싹이 돋다, 얼굴에 여드름이 돋다'에서처럼 어떤 표면에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돌출되어 나온다는 의미인데 '화가 돋다, 생기가 돋다'처럼 추상적인 기운이 생긴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런 쓰임에서 좀 더 확대되어 이전에는 확대될 수 없었던 '감동, 우정'과 같은 감정이나 '미모, 가창력'과 같은 명사에까지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감동이 느껴지다, 우정이 생기다'나 '미모가 뛰어나다, 가창력이 뛰어나다'와 같이 원래 '감동, 우정'이나 '미모, 가창력'과 결합되던 동사 '느껴지다, 생기다'나 '뛰어나다'가 쓰일 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돋다'는 선행 명사의 어떤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보다는 화자의 놀람이나 느낌을 과장되게, 또는 강조하고 싶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동사가 아닌가 한다.

이런 유형으로는 젊은층에서 사용되는 용언 중에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가장 폭넓은 외연을 가지고 쓰이는 '찢다'가 유사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야 너 새 휴대폰 찢다.'나 '오늘 급식 찢어!', '우와, 찢어!', '겁나 찢다!'의 '찢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현상이 자신의 기대 이상이거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아주 좋다' 혹은 '아주 나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식 찢어'는 맛이 없다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맛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반대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서술어는 행위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10)</sup> '놀랍다, 충격적이다' 등의 표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음식 맛이라니 정말 놀랍다.'나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니, 놀랍다!'에서처럼 어떤 상황이 화자의 기대 이상이거나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나타낸다.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는 선행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찢다' 동사는 이런 유형의 동사들과 같은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성분이 명사나 어떤 사태를 나타내는 절 등 제약이 거의 없다.

그러나 '찢다'와 달리 '돋다'는 '감동 돋다, 미모 돋다, 우정 돋다' 등의 예처럼 선행하는 명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런 명사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든, 새롭게 생겨난 것이든 [생기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고 여기에 [화자의 기대 이상의 놀람]이라는 의미를 더해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표현으로 보인다. '찢다'가 선행 명사의 제약이 없는 동사인데 반해 '돋다'는 없던 감정이나 능력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명사와 동사의 선택 제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수의 명사와 결합 양상이 확대되는 '돋다'와 같이 형용사 '착하다'도 사람의 성품이나 심성이 곱고 바르다는 의미로 쓰이는 '마음이 착하다, 성품이 착하다'처럼 쓰이던 것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 상품의 품질, 가격 등과 함께 '얼굴이 착하다, 몸매가 착하다, 상품이 착하다, 품질이 착하다, 성능이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처럼 어떤 대상이나 물건이 화자의 마음에 들거나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돋다’와 ‘착하다’의 이런 변화는 기존의 연어가 유사한 의미부류의 틀에 유추되어 발달하는 것과 상이한 변화이다. 유사한 의미부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돋다’나 ‘착하다’의 연어변이 다양한 언어행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어들 중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다’의 ‘마시다’나 ‘피우다’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연어변을 ‘먹다’라는 유개념 동사로 교체해 ‘술을 먹다, 담배를 먹다’와 같이 쓰이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듯도 하다. 그러나 그 쓰임이 확대되고 있는 ‘돋다’나 ‘착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결합하는 선행 명사들을 일정한 의미부류로 묶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이들 구성을 과연 연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최근 젊은층에서 쓰이는 ‘상관(을) 쓰다, 긴장(을) 타다, 말씀(을) 주다, 추억(이) 돋다, 가성비(가) 착하다’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관, 긴장, 말씀, 추억, 가성비’는 기존 언중들에게 ‘상관(을) 하다, 긴장(을) 하다, 말씀(을) 하다, 추억에 잠기다, 가성비가 좋다’와 같이 ‘하다’나 ‘잠기다, 좋다’ 등의 용언과 결합하여 쓰이던 표현이다. 그런데 이들 명사는 젊은층들에게 기존에 결합하던 동사나 형용사가 아닌 새로운 용언들을 선택해 쓴다는 점에서 새로운 언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 관계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부류나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언어 구성에 유추되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구성들은 조금은 색다른 이유로 언어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관 쓰다’류는 ‘원인과 결과’의 사태를 나타내는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선행절의 일부와 후행절의 일부가 선택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체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형성된 경우이고, ‘말씀 주다’는 ‘말씀 드리다’의 객체높임법 어휘 ‘드리다’를 ‘주다’의 상대높임법 어휘로 잘못 해석하면서 언어 관계가 형성된 경우로 보인다. ‘추억 돋다, 가성비 착하다’는 ‘돋다’와 ‘착하다’가 특정 명사와 결합해 ‘생기다’나 ‘바르다’라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용언인데 화자의 만족이나 감탄,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명사와 결합해 쓰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유형들이다. ‘X가 돋다’나 ‘X가 착하다’라고 했을 때 기존 언중들은 ‘씩이 돋다, 여드름이 돋다’나 ‘마음이 착하다, 성품이 착하다’와 같이 ‘X’에 특정 명사를 연상해 내지만 새로운 언중들은 ‘X’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성은 언어 관계에서 자유 결합으로의 이동을 보이는 유형들이다.

본고는 젊은층 발화에 나타나는 명사와 동사의 결합 관계를 통해 새로운 언어 변화의 기제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자료가 몇 개 구성으로 한정되고 이들 표현조차 일상생활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필자의 한계로 설명과 주장이 면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좀 더 많은 예와 자료 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 1) ‘겉바속촉, 얼죽아, 혼코노, 돼지런하다, 호캉스, 요린이’의 풀이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어학반이 2020년에 묶어낸 신어집 6집과 7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 2) 장경현(2011:291)에서는 ‘빈정상하다’의 생성을 ‘빈정’이 ‘감정’과의 형태적 유사성에 이끌리는 것과 동시에 ‘빈정거리다’에서 행위에서 도출되는 [불쾌감]이라는 결과적 의미가 중심 의미로 확대되면서 유추와 환유가 작용하여 오본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3) ‘빈정상하다’는 <고려대한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대한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 4) 박진호(2016:388)에서는 본래는 만들기 동사(creation verb)가 아닌데 만들기 동사처럼 쓸 수 있는 현상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산에 터널을 뚫다, 커피를 끓이다, 빵을 굽다, 논문집을 엮다, 스웨터를 뜨다’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다,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만든다, 밀가루를 구워서 빵을 만든다, 논문들을 엮어서 논문집을 만든다, 실을 떠서 스웨터를 만든다’처럼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만들다’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환유(換喩)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 5) 일부 성분을 이용하여 전체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을 환유(換喩)의 개념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6)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내로남불’이라고 하거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할말하않’으로 줄여 표현한다.
- 7) 통시적으로 상대높임법 종결어미 ‘-습니다’이나 ‘-사오-’가 객체높임법 선어말어미 ‘-습/줍/습-’에서 비롯된 것을



- 
- 보면 객체높임법을 나타내는 어휘가 상대높임법 어휘로 인식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 8) 특정 종교 집단에서의 언어 표현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 9)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하는 전자신문 '인터넷 이디엄 <14> 돋다'의 설명에 따르면 '돋다'는 MC몽이 '1박 2일'에 출현하며 자주 썼던 와 리얼이야, 나 소름 돋았어'라는 표현을 네티즌이 '레알 돋아' 혹은 '돋다'라고 줄여 쓰면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처음의 의미와 용법이 확장되면서 차츰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 양쪽으로 모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한 의미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장하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찼다'와 용법이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s://www.etnews.com/201010210115>)
  - 10) [인터넷 이디엄]<12> 찼다'(전자신문, 2010.10.7.)의 기사에 따르면 '찼다'의 의미 기능은 좋고 나쁘다는 의사 표시를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이의 고양된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에 더 가깝다고 한다.

## 참고 문헌

- 강현화(1998),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1-224.
- 김진해(1999), 연어(collocation)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4, 한국어의학회, 239-279.
- 김진해(2000), 연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222.
- 박주형(2020), 은유와 환유를 바탕으로 한 연어 구성 합성명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49집, 5-29
- 박진호(2003),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제41집, 국어학회, 361-419.
-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언어학회, 381-396.
- 박진희(2005), 연어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3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3-105.
- 이동혁(2003), 연어 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집, 국어국문학회, 131-161.
- 이희자(1994),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한국정보화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333-352.
- 임근석(2011),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61집, 국어학회, 359-387
- 임홍빈(2002), 한국어 연어의 개념과 그 통사·의미적 성격, 『국어학』 39집, 국어학회, 279-410.
- 장경현(2011), 신조어 연어의 형성 원리, 『인문논총』 제66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69-297.
- 정은진(2019), 통시적 관점의 연어 교육 제안-'사진(寫眞)' 관련 연어 표현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제29집, 175-205
- 조은영(2010), 어휘적 연어의 형성과 유추, 『한국어학』 48, 한국어학회, 299-331.
- 황용주(2006), 연어 구성 변화에 대한 국어정보학적 연구-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53-81.

### <참고 자료>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어학반(2020), 신어집 6집, 7집
- 전자신문(2010), [인터넷 이디엄]<12> 찢다, 2010.10.07. 기사  
<https://www.etnews.com/201010070029>
- 전자신문(2010), [인터넷 이디엄] <14> 돋다, 2010.10.21. 기사  
<https://www.etnews.com/201010210115>